

국 어
문법총
N 제

공영민

05

<보기>의 ㉠~㉣을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 ‘신라[실라]’에서는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지만 ㉡ ‘달고[다코]’에서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또한 ㉢ ‘닭[닥]’에서는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고, ㉣ ‘한입[한닙]’에서는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칼날[칼랄]’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②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서울역[서울력]’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밝히다[발피다]’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 ④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흙하고[흐카고]’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다.
- 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뭇과[목파]’에서도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탐구 과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미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미 허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데, 아래의 조항을 보고 ㉠~㉤의 띄어쓰기가 적절한지 판단해 보자.

-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 덩벼들어 보아라.
-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 잘난 체를 한다.

○ 자료

- ㉠ 그는 책을 읽어도 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 ㉡ 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듯하다.
- ㉢ 하마터면 지하철을 놓쳐 지각을 할뻔도 했구나.
- ㉣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 ㉤ 영수가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판단 내용	근거
①	㉠ 적절함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②	㉡ 부적절함	앞말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다.
③	㉢ 부적절함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④	㉣ 적절함	앞말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다.
⑤	㉤ 부적절함	앞말이 합성 용언이기 때문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우리말의 특이한 용법 중에는 ‘주다’와 ‘달다’가 있어요. 두 말 모두 ‘어떤 것을 건네다’의 의미를 지니지만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과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 그리고 상대 높임 등급에 따라 그 쓰임이 달리 나타납니다. [B]의 상대 높임 등급표를 보고 [A]의 대화를 탐구해 보도록 해요.

[A] 대화

아빠 : 여보, 거기 있는 신문 좀 나에게 주오.

엄마 : 알았어요.

아빠 : 민수야, 너희 누나에게 이것 좀 주어라.

민수 : 네, 알겠어요.

아빠 : 그리고 누나가 책을 주면 받아서 나에게 다오.

[B] 국어의 상대 높임 등급표

등급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하십시오체	주십니다	주십니까	주십시오	주시지요
하오체	주오	주오	주오	줍시다
하게체	주네	주는가	주게	주세
해라체	주다	주지	주어라	주자

[학생의 탐구 내용]

[A]와 [B]를 보니, _____ ㉠ _____

- ①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 ② ‘달다’는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 ③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오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 ④ ‘달다’는 ‘내가 남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하게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 ⑤ ‘달다’는 ‘남이 나에게 건네는 것’의 상황에서 해라체 명령형일 때 쓰이는군.

6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1>—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음 뒤에서는 ‘과’, 모음 뒤에서는 ‘와’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그 쓰임에 있어서는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속 조사를 통해 체언이 연결될 때 가장 후행하는 체언에도 접속 조사가 결합하였다.

- 仁과 날와를 보느니 (어짚과 나를 보니)
‘르’ 받침 뒤의 접속 조사 ‘과’는 ‘ㄱ’이 약화되어 ‘와’로 나타났다.
- 종과 물와를 (종과 물을)
접속 조사 뒤에서 주격 조사는 ‘ㅣ’의 형태로 결합하였다.
- 엄과 니왜 다 도흐며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보기2>—

- ㉠ 堅實호미 (기름과 물이 견실함이)
- ㉡ 請흐스보려 (부처와 중을 청하려)
- ㉢ 짓두드려 (줄기와 잎을 짓두드려)

	㉠	㉡	㉢
①	기름과 물왜	부터와 중과를	줄기와 넙과를
②	기름과 물과	부터와 중과를	줄기와 넙과를
③	기름과 물왜	부터과 중와를	줄기과 넙와를
④	기름과 물과	부터와 중와를	줄기과 넙과를
⑤	기름과 물와ㅣ	부터와 중을	줄기과 넙와를

7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어떠한 단어가 다의어로 쓰일 때, 그에 따라 반의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뛰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가 뛰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내리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문	반의어
벗다	날씨가 춥지 않아 장갑을 <u>벗었다</u> .	끼다
	모자를 <u>벗으니</u> 기분이 홀가분하다.	(가)
	(나)	겪다
	신발 끈이 단단히 묶여 있어 <u>벗기</u> 가 힘들다.	(다)

(가)

(나)

(다)

- | | | |
|------|----------------------------|----|
| ① 입다 | 번데기가 허물을 <u>벗고</u> 나비가 되다. | 쓰다 |
| ② 쓰다 | 노력 끝에 가난한 생활을 <u>벗다</u> . | 신다 |
| ③ 입다 | 교복을 <u>벗고</u> 사회로 나가게 되다. | 쓰다 |
| ④ 쓰다 | 내일이면 병역의 의무를 <u>벗는다</u> . | 신다 |
| ⑤ 신다 | 그는 촌티를 <u>벗고</u> | |

[89~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한의 문법 단위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는 그 형태 역시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일부 형태소의 경우,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는 대개 그것이 나타나는 조건이 음운론적 차원인지 형태론적 차원인지에 따라 ㉠ 음운론적 이형태와 ㉡ 형태론적 이형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은 앞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 ‘-았-’이, 음성 모음일 경우에 ‘-었-’이 결합하는데, 이는 모음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었-’은 오로지 어간 ‘하-’ 뒤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하-’라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이므로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A] 그러나 이형태 중에는 이 ㉢ 두 가지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 ‘에게’가 ‘께’로 나타나는 것은 음운론적 이형태나 형태론적 이형태로 설명하기 어렵다. ‘께’는 선행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높임’이라는 의미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형태는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와 ‘의’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인데, 무정 명사 혹은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서는 ‘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시’는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가 아닌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인 것이다.

89

〈보기〉의 ㄱ~ㄴ이 윗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 ㄱ. 일반적인 주격 조사는 ‘이, 가, 께서’인데 선행 체언이 단체일 경우에는 ‘에서’가 결합한다.
 - ㄴ. 유정 명사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에게’로 결합하고 무정 명사 뒤에서는 ‘에’로 결합한다.
 - ㄷ.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는 ‘-어라, -아라’인데 ‘오-’는 명령형 어미로 ‘-너라’가 결합하여 ‘오너라’로 쓰인다.
 - ㄹ.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을’로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를’로 결합한다.

	㉠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ㄱ, ㄹ	ㄷ
④	ㄹ	ㄱ, ㄷ	ㄴ
⑤	ㄹ	ㄷ	ㄱ, ㄴ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게, 께’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太子 | 臣下익그에 가 닐오되(태자가 신하에게 가 말하되)
- 범의그에 해흔 배 되니(범에게 해를 당한 바가 되니)
- 王스그에 가리라(왕께 가리라.)

(나) 근대 국어

- 太子 | 臣下의게 가 닐오되(태자가 신하에게 가 말하되)
- 범의게 해흔 배 되니(범에게 해를 당한 바가 되니)
- 王께 가리라(왕께 가리라.)

(다) 현대 국어

- 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라)

중세 국어에는 오늘날 ‘에게, 께’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 한편, 중세 국어에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인 ‘그에’가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그곳에’라는 의미이다.

[탐구 내용]

[탐구 결과]

중세 국어의 ‘익그에, 의그에, 스그에’는 관형격 조사와 공간을 가리키는 말의 합성어였는데, 근대 국어를 거쳐 하나의 조사로 굳어졌으며 오늘날에도 관형격 조사의 흔적이 남아 높임의 대상이 아닌 체언에는 ‘에게’, 높임의 대상인 체언에는 ‘께’가 결합한다.

- ① (가)에서 ‘익그에’와 ‘의그에’는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 관계이다.
- ② (나)에서 ‘의게’와 ‘께’는 선행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른 이형태 관계이다.
- ③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근대 국어의 ‘의게’와 ‘께’는 각각 중세 국어의 ‘익그에, 의그에’와 ‘스그에’가 변화한 형태이다.
- ④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의 ‘에게’와 ‘께’는 각각 근대 국어의 ‘의게’와 ‘께’가 변화한 형태이다.
- ⑤ (라)에 따르면, (가)의 ‘익그에, 의그에, 스그에’, (나)의 ‘의게, 께’는 오늘날 ‘~의 그곳에’에 해당하는 단어였다.